

#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Self-Esteem,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김강한, 김영건, 김예린, 박수환, 박유정, 임태련, 최민경, 최민주, 최지은, 하소정, 한동희

지도교수 권윤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매년 1만 5천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간호대학 졸업생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취업에 용이하다고 여겨지던 간호학과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 학업성적 뿐 아니라 다양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1]. 이론수업, 실습수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바쁜 학사일정 중에 국가고시 준비와 취업준비가 같이 이루어지므로 4학년 졸업학년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3] 이러한 취업스트레스는 간호학과가 비간호 보건계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4].

여러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비판적 사고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의 간호학 교육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보건으로 환경과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학생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사고력을 길러주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의 필수 능력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6]. 이와 함께 자아존중감은 과제수행 및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개인이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능력으로 여겨진다[5].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7],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념을 소유하게 되며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8]. Park, Bae & Jeong의 연구[5]에서 비판적 사고과정으로 학업에 성공하는 경험이 있는 학생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반면에 학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스스로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은 낮아져 취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학업 및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다른 조절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제시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좌절하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9~10]. 여러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1~1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을 성공적으로 하여 직장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가지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진로결정의 중요성 때문에 직업행동과 관련된 영역의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14~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간호대학생은 높은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16].

본 연구는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요인들과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에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17].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18].

#####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조절요인 중 하나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좌절하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5][19].

##### 4)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 기능의 인지적인 차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중히 여기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 혹은 지적 열정과 건전한 회의성을 가지고 지적으로 정직하며, 신중함과 객관성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성 또는 기질이다[20].

##### 5) 취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란 취업 준비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를 이루어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을 느끼는 상태로 취업준비에 대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19].

##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4년제 간호대학 12개를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간호대학 학생들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서술적 상관관계연구로 원인과 결과를 확정짓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 II. 문헌고찰

### 1. 취업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21]. Hwang[22]은 취업스트레스를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생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Jeong, & Roh[23]는 취업스트레스를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최근에 졸업한 사람이 최초의 취업 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Seo[24]는 취업스트레스란 대학졸업 예정자이거나 최근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결정 중인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을 동반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긴장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Park & Lee[17]는 취업 스트레스를 취업 준비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를 이루어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렇듯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

### 2. 자아존중감과 취업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인 요인 중에서 자아존중감은 취업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인이다. 간호대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5]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학업.취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학업.취업스트레스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존감은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Shin & Jang[2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Shin과 Cho의 연구[26]에서 취업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 향상과 함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27].

###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 스트레스

Choi & Jeong의 연구[28]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검증 결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중에서도 목표 선택이 취업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목표 선택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Lee[2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 4. 자아 탄력성과 취업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은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과 취업준비로 인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부적응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Choi[30]의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소들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자아탄력성( $\beta = -.299, p = .001$ )이 매우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 탄력성과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Lee[31]와 Park & Lee[17], Jung[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 5. 비판적 사고성향과 취업 스트레스

비판적 사고성향이란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업무에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이용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평가와 판단을 위한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사고로서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개인적인 성향 및 기질을 뜻한다[32]. 현재 대학에서의 간호학 교육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학생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사고력을 길러주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의 필수 능력으로서 비판적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6]. Park & Joe의 연구[27]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취업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낮은 취업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과 충남, 경기도에 소재한 12개 간호학과 2021년 졸업예정인 4학년을 편의표출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 적절한 표본 수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05$ , 검정력 0.8, 효과크기 0.25, 변수 5개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할 때에 필요한 표본수는 총 200명으로 나타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3. 연구 도구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스스로를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27]. 본 연구에서는 Park & Joe의 연구[27]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도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측정방법은 4점 척도

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전체 점수는 최저 10점부터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의 연구[27]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이었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 행해야 하는 진로발달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측정하는 것[28]으로, 본 연구에서는 Lee의 연구[33]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5개의 하위 척도별(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로 5문항씩이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점수는 최저 25점부터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의 연구[33]에서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 $\alpha$ )는 .86에서 .89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7에 이르렀다

####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좌절하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30]. 본 연구에서는 Min의 연구[34]에서 사용된 도구를 연구자의 허락을 구한 후에 사용할 것이다.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3개의 하위 영역(관심과 흥미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 지향성)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척도이다. Min의 연구[34]에서 영역별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71~.80이었고 전체 21문항에 대해서는 .90이었다.

#### 4)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이란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업무에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위해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이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을 의미한다[17]. 본 연구에서는 Yoon[35]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 도구를 연구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것이다. 본 도구는 지적 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의 7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말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전체 점수 범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이었고, Yoon[3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이었다.

#### 5) 취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란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의미한다[18].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코넬대학의 스트레스측정법(Connell Medical Index: CMI)을 토대로 개발된 Whang[36]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참고하여 Kang[3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 검사는 총 22문항이며, 성격, 가족환경, 학교환경, 학업, 취업불안 스트레스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되며, 전체 점수는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3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하위 척도 영역별로 Cronbach’s alpha=.78~.88이었다.

### 4.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 진행 절차

자료 수집은 2020년 12월 4일~12월 16일까지 12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수집은 선정된 각 학교의 간호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간호학생에게 설명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할 것이며, 총 220부를 배부 예정이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자료 수집 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고,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린 후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후 수행할 것이다.

####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2.0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취업스트레스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를 사용한다.
-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다.
- 4)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법을 사용한다.

### IV.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던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보고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돕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2.  
<https://kess.kedi.re.kr/eng/index.jsessionid=H9IIASWBmdY8ycann8D4Zy4DIQkzlmK4atesqVdXglG1fsqxMI7pmAuNgFLxxNrT>
- [2] H. J. Choi, K. I. Jung,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 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8. 24(1), p. 61-72.
- [3] D. Chaney, M. S. Hammond, N. E. Betz, D. Multon.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Scale-SF with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07. 15(2), p. 194-205.
- [4] S. H. Kim, S. H. Lee. The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5. 27(1), p. 63-72.
- [5] H. S. Park, Y. J. Bae, S. Y. Jeo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02;11(4):621-631
- [6] S. J. Yune, S. J. Shin & E. Y. Lee, "A Study on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Vocational Personali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 Fish. Mar. Sci. Edu*, 2007. 19(2). p. 206-218.
- [7] 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1979.
- [8] S. J. Lee, J. H. Yo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8. 22(3), p. 607-689.
- [9] H. S. Song & S. H. Lim.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17(14), p. 21-36.
- [10] E. Ah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n Senior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Perspectives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 9(6), p. 365-372.
- [11] M. J. Park, J. H. Kim & M. S. Ju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9. 10(1), p. 417-435.
- [12] M. O. Kim, Y.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2. 19(11), p. 69-90.
- [13] H. N. Lee, H. J. Jeong, K. H. Lee & H.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Perception, Stress Coping, Ego-resilience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6. 7(3), p. 701-713.
- [14] National Korean Language Institute. Standard Korean Dictionary.
- [15] Korean Nurses Association.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http://www.nursesnews.co.kr/main/eBookList.asp?sYear=0&sMonth=00&intPage=6>
- [16] Ministry of Education. Employment Statistics for Graduat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2017. 2018.
- [17] E. H. Park, E. T. Lee,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jobs seeking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2013. 24(4), p. 5-30.
- [18] N. S. Kim, J. H. Bae.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Career Self-Efficacy, Secondary Education Institute. 1998;10(0):394-400
- [19] M. H. Choi, J. H. Kim, E. S. Nam.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Occup Health Nurs*. 2015;24(2):122-131.
- [20] I. S. Kwon, G. E. Lee, G. D. Kim, Y. H. Kim, H. S. Park, G. M. Park, S. K. Sohn, W. S. Lee, K. S. Jang, B. Y. Chung.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006;36(6):950-958
- [21] S. H. Kim, S. H. Lee.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2015;27(1):63-72
- [22] S. W. Hwang. A study on college students' job search stress.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1998.
- [23] E. S. Jeong, A. Y. Ro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depression,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in college studen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2001;33: 85-101
- [24] J. H. Seo.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their University Life. [Master's Thesis]. Busan : DongA Univ ; 2012
- [25] H. K. Shin, J. Y. Jang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gender, job-seeking stress and mental health in college senior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 [26] K. S. Shin, I. J. Cho, The Effects of Job-seeking Skill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in College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2013;29(3):143-160
- [27] B. S. Park, H. N. Joe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16(2):1109-1117.
- [28] H. J. Choi, G. M. Jung.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018;24(1):61-72.
- [29] M. K. LEE The Analysis About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Undergraduates - In Focus of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Colleges [Master's Thesis] HANIK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 2004
- [30] S. K. Choi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on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3):386-393.

- [31] M. R. Lee The Relationships among Major Satisfaction, Ego-Resiliency and Job Preparing Stress [Master's Thesis] Muan :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p. 30-34.
- [32] P. A. Facione, & N. C. Facione,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skill test manual (3rd ed)", California: California Academic Press. 1994
- [33] E. J. Lee,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9. p. 134-135
- [34] D. I. Min,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ego-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cheon: Inha University, 2007. p. 100-102
- [35]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n Nursing. [doctor's thesis], Seoul: Catholic University. 2004. p. 127-129
- [36] S. W. Wh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1998.
- [37] Y. R. Kang,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